



광주세계수영대회 경기장 예술작품 2019 광주 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37일 앞둔 5일, 하이다이빙경기장을 마주보고 있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건물 옥상에 프랑스의 유명 스트리트 아트 작가 세드의 작품이 그려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어등산 관광단지 상업 용지 협소” 유통 대기업 수익성 낮아 참여 난색

대기업 시내 면세점도 난항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대기업 시내 면세점(보세판매장) 개설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유통 대기업 참여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광주시가 참여 의사를 타진했던 유통 대기업 대다수가 ‘수익성이 낮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오는 21일 민간사업자 사업제한 공모를 마감하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현재까지 유통 대기업의 참여 의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사업자 유치를 위해 지난달 유통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8곳을 찾아가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유통 대기업들은 “단지 내 상업용지가 1만 5000평(5만㎡)은 돼야 하는데 너무 협소하다”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지역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입장을 고려해 단지 내 상가시설 부지면적을 7000평(2만4170㎡)로 제한했다. 그러면서도 사업 대상지의 토지매각 기준가격(41만7531㎡570억원)을 공모 마감 전 공개하고, 상가시설 건폐율을 완

화(30~80%)하는 등 무산됐던 1·2차 공모와는 달리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한 배려도 취한 바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2곳 정도 되지만, 유통 대기업들은 상업용지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우선협상자 선정은 평가위원들이 하는 것이지만, 관광단지가 오랜 기간 이용객이 찾아오고 활기를 띠려면 무엇보다 유통 대기업 참여가 중요하다는 게 광주시와 저희 공사의 공통된 견해”라고 말했다.

시내 대기업 면세점 유치사업의 경우 도 공모 마감에 11월로 적잖이 남았지만, 광주시는 벌써 다급해진 모양새다. 주요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연간 관광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규모 10~20만명 수준으로는 곤란하다”며 사업 참여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는 지난달 14일 회의를 열고 광주(1개)와 서울(3개), 인천(1개)에 대기업 시내 면세점 특허를 부여했다. 사업자 공모와 선정은 관세청 주관으로 진행되며, 광주의 경우 면세점 입지로는 어등산관광단지외 상무지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전남, 과학기술혁신 지원·성과 ‘하위권’

역량 평가 혁신도시 한전 등 영향 전국 16위 →9위 급상승  
인적자원 양성·연구개발 투자 증액·인프라 구축 서둘러야

전남이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 양성 및 조직 구성, 연구개발 투자 증액, 인프라 구축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이 공동조성한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덕분에 네트워크 구성, 산·학·연 협력, 기업 간·정부 간 협력 등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에 도달했으나 이같은 성과가 지역 발전, 지식 창출 등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공대를 주축으로 한 에너지 연구 생태계 조성, 세계적인 연구기관의 유치, 성과 창출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이

과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5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2018년 지역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R-COSTII)에 따르면 전남은 16개 시도 가운데 9위로, 지난 2014년 16위에서 7계단 상승했다. 2014년 최하위였다가 2015년 10위, 2016년 14위, 2017년 11위 등 10위권 밖을 맴돌았으나, 지난해 비로소 10위권 내에 진입한 것이다. 광주 역시 2014년 7위에서 지난해 5위로 2계단 상승했다.

이 같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동반 상승은 한전 등이 입주해 있는 빛가람혁신도시

시의 후광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원·활동·네트워크·환경·성과 등 지역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의 5개 주요 지표 가운데 광주·전남이 네트워크와 환경 부문에서 큰 폭으로 순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학·연 협력, 기업 및 정부 간 협력, 국제 협력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부문에서 광주는 경북, 대구에 이어 3위, 전남은 6위를, 자원 제도와 인프라, 교육·문화 항목으로 채워진 환경 부문에서 광주는 대전, 울산에 이어 3위, 전남은 4위에 각각 올라갔다.

하지만 자원, 활동, 성과 등의 지표에서는 상위권 지자체와 큰 격차를 보이며 여전히 하위권과 최하위권을 오가고 있다. 특히 인적 자원, 조직, 지식자원 등 자원 부문은 심각한 수준이다. 전남은 자원 부문에서 157점으로 15위, 광주는 685점으로 8위였다. 전남은 2017년 164점에서 7점이, 광주는 같은 해 747점에서 62점이 오히려 하락했다. 광주·전남의 점수는 2018년 16개 지자체 평균인 1245점에 크게 못미치는 등 열악했다. 연구개발투자, 창업·사업화 등의 항목의 활동 부문 역시 광주와 전남은 나란히 12위(709점)와

13위(632점)로, 전국 평균(1440점)의 절반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연구개발 인재를 유치·양성하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전남도는 지역 연구개발(R&D)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도 과학기술진흥조례’를 개정해 신성장산업과 R&D 총괄관리 부서로, 전남테크노파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체계를 정비한 바 있다. 또 국가 R&D 예산 20조원 시대를 맞아 국가 공모사업 추진 프로세스 등 사업 순기에 맞춰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R&D는 기초과학(1~3단계), 응용(4~6단계), 사업화(7~9단계) 등 단계별로 인재, 지원, 환경, 성과 공유 등의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며 “이 같은 측면에서 지역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산·학·연이 이러한 문제의 대책을 함께 수립하고, 장기간 투자를 통해 R&D의 지평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민주당, 총선 공천률 당원 의견 수렴 착수 ‘탈당 4년 지나면 감점 없는 규정’ 바뀔지 관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10개월여 앞두고 공천률을 결정하기 위한 당원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총선특별당규토론회’ 시연행사를 열고, 총선 공천률에 대한 당원의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특히, ‘탈당 이후 4년만 지나면 감점을 받지 않기로’ 하는 등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총선 공천률을 바로잡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허술한 공천률이 적용될 경우 광주 광산갑 선거구 출마가 예상되는 이모씨의 경우 세번이나 탈당하고도 감점을 전혀 받지 않아도 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역 정치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시연회에서 “온·오프라인이 결합한 플랫폼 정당을 만들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약속했

는데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이미 당원 플랫폼상 온라인 투표 기능을 구축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 구체적인 전 당원 투표 일정과 중앙위원회 소집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계사판은 일반 당원들이 자유롭게 계사글을 올리며 총선률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구성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2주기당 토론회 계사판을 통해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당원 플랫폼에서 전 당원 찬반 투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또다시 찬반 투표를 진행, 온라인 투표와 합산해 찬성표가 절반을 넘기면 특별당규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죽음 부른 데이트 폭력	▶6면
신팔도유람 - 경남 의령 도개비 숲	▶18면
U-20 월드컵 8강 “어게인 1983”	▶20면

### 피부균형을 리셋해 스스로 빛나는 피부로

LIMITED 설화수 윤조에센스

피부노화, 시간이 아닌 피부 속 불균형의 문제  
자음단™을 담은 윤조에센스가 흔들리는 피부균형을 리셋해  
5가지 젊음의 지표\*를 최적의 상태로 끌어올려줍니다.  
이제, 젊음의 밸런스로 다시 힘 있게 깨어나는 피부를 만나보세요.

\*자생력, 생기, 영양, 투명, 탄력

# Sulwhasoo

•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키온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래그십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